

“文 정부 경제 점수 낙제, 경제 외교 강화하라”

전준범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만난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에는 비가 내렸다. 새벽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해가 뜬 후에도 출근길 직장인을 괴롭혔다. 젖은 재킷을 털며 전 이사장이 있는 무역센터 25층 집무실로 들어서자 그가 창문을 가리키며 “맑은 날에는 전망이 좋는데 오늘은 흐려서 가시거리가 짧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잔뜩 먹구름 낀 날씨가 꼭 우리나라 경제 상황처럼 보여 오늘 인터뷰 주제(경제 분석·전망)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며 웃었다.

잡담을 나눌 때는 온화한 미소로 일관하던 그가 인터뷰 시작과 함께 표정을 바꿨다. 전 이사장은 한껏 굳은 얼굴로 “한국의 경제 체력이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며 “2020년에는 정책을 정치권 위한 도구로 쓰는 걸 멈추고 기업이 뒤흔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점수를 후하게 쳐도 60점 이상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이사장은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경제 구조인 만큼 경제 외교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평가해달라.

“먼저 대외 상황부터 돌아보고 한국으로 넘어가겠다. 2019년은 전 세계 주요국의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그래서 국제 기구나 신용평가사의 성장 전망치가 여러

韓 경제 체력 바닥
국익 위해 日과 협력해야
중 부채 리스크 대비 필요

차례 하향 조정된 한 해였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악재까지 겹쳐 경기 심리가 더 위축됐다. 시장을 달구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리 인하에 나섰다. 그전까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기조가 강했는데, 2019년에는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돌아섰다.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주요국 채권 규모가 확대된 것도 지난해의 특징이다. 유동성은 늘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니 미국 같은 강대국 증시는 ‘불황 속 활황’을 즐겼다.

한국은 대외 경기 침체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다. 수출 감소 추세나 폭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컸다. 국가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 상승률이 2019년 상반기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낮게 나왔다는 분석 결과(한국경제연구원 조사)만 봐도 유난히 흔들렸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볼 수 있다. 국내 증시도 주요국 대비 바닥을 기어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정부에서 재정 투입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전광우 서울대 경제학과,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특보, 금융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홍구 객원기자